

신년사



대한산업보건협회장 조규상

癸酉年을 맞이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과 정부관계자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난해 본 협회에 베풀어 주신 격려와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권의 존중속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어느때보다도 신장되어 나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사회 발전속에서 지난해는 많은 기대와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였던 한해로서 CS₂ 중독의 판정과 높은 건설재해 발생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도 있었으나 산업보건분야는 여러면에서 개혁과 창조가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결실있는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직업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아울러 법령과 제도면에서도 그동안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 보완하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건강권에 대한 근로자들의 참여기회의 확대, 사업장 보건관리 체제의 강화, 영세기업을 위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활동지원, 재해예방 기금의 확보와 산업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의 신설, 산업보건연구원의 개원 등 강력하며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 실시하였

고, 이와 발맞추어 우리 협회도 전문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여러가지 일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근로자들을, 그리고 넓고 수시로 변동하는 작업환경을 정확히 진단, 측정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진단과 측정을 하기 위하여 본 협회는 지난해부터 법에 따라 진단기관들에 대한 정도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진단수준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있는 건강진단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산업보건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외된 사람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건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0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보건관리자를 가질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50인 이상의 의무화된 사업장마저 보건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두고 있는 사업장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이들 미배치 사업장을 위하여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많은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 사업이 활성화

**“산업보건사업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분야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모든분야 사람들의 협력을
얻음으로서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본 협회는 전국의 사업이 확대 강화됨에 따라 3개 보건센터와 3개 분소가 신설되었고 2개 센터가 보다 일하기 좋은 곳으로 이전되었으며 이들 활동에 필요한 장비도 20억원 상당의 기구가 새로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기술협력 사업을 체결함에 따라 전문가의 내한과 견습생 파견 그리고 16억원 상당의 기자재 지원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해 본 협회는 한일 학술회의를 위시하여 각종 학술집담회와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보건관리자를 위하여는 시청각 교재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였으며, 보건관리를 위한 귀중한 서적과 전산실을 통한 통계자료들도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속에서 본 협회 직원수도 650여명으로 증가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세대이며 놀랄만한 신장입니다.

본 협회는 지난해에 시작한 이들 중요한 사업들이 결실을 이루도록 모든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첫째로 산업보건 연구소를 신설하여 전문가들의 연구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둘째로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시범사업

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 협회가 창설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은 50년대에 진폐증의 발견과 탄광의 가스 중독 조사로부터 비롯되어 60년초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서 근로보건관리규칙이 나오게 됨에 따라 보건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실시되었고, 이를 계기로 제 1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본 협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 후 30년간 산업경제 개발속에서 우리 산업보건은 어려움을 이기며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의 협조를 얻어 학술대회와 함께 역사도 편찬하는 뜻있는 행사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산업보건사업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분야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 사람들의 협력을 얻음으로서만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 그 자체가 포괄적인 노력으로서만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해도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아침